



양철남비 문화

언제인가 길에서 문득 느낀 것이 있다.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에서 매일 경험하는 일이다. 횡단보도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을 때 파란불을 기다리는 사람 중의 몇은 반드시 차도에 내려와 서있다.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차에 스치지 않을까 겁이 날 정도로 차도 한가운데까지 나가있기도 한다. 신호가 바뀌면 남보다 한발 먼저 길을 건너겠다는 속셈일 것이다. 신호가 바뀌자마자 달려오던 차가 채 멈추기도 전에 쏜살같이 달려간다. 그러나 그 다음은 더욱 흥미롭다. 목숨을 내어놓은듯 위험을 무릅쓰고 조금하게 서두르던 사람이 일단 횡단보도를 건너간 다음에는 전혀 판판이 된다. 손을 바지 주머니에 찌르고 천천히 걸으며 가게 쇼윈도를 들여다보기도 하며 유유자적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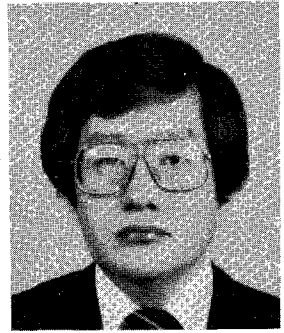
이런 광경은 우리 주변에서 매일 아주 흔하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는, 특히 소위 선진국이라는 나라들에서는 보기 힘든 광경이다. 그들은 분주하게 걷다가도 횡단보도에 와서는 서두르지 않는다. 차도에 내려서서 기다리지 않으며 신호가 바뀌자마자 급히 내닫지

도 않는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우리는 어느나라 사람보다도 조금하고 참을성이 없다. 느긋하게 기다릴 줄 모르며 꾸준하게 계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줄을 서지 못하며 순서를 기다리지 못한다.

식당에 가서 음식나오기를 재촉하는 사람은 한국사람밖에 없다는 이야기도 듣는다. 꼭 그렇기야 하겠는가마는, 우리 말고 또 조금한 민족이 없기야 하겠는가마는, 우리의 조금성이 가히 최상급인 것만은 부인할 수가 없다. 우스운 일화가 있다. 사실인지 지어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한국에서 식당을 하던 중국 화교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또 식당을 차렸다. 미국에 있는 중국식당의 음식 맛이 한국에서 먹던 것과는 다르므로, 미국에 가는 한국사람들이 자연 그 식당을 많이 찾게 되었다. 한국에서처럼 짜장면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었고, 그러다 보니 그 식당 손님의 주류가 한국인 교포나 여행객이 되었다. 얼마 후 그 식당 주인이 하소연을 하더라. 한국에서 음식 빨리 내어놓으라고 재촉하는 것이 지

장 환 일
경희대 의대 신경정신과 교수



겨워 미국으로 이민을 왔는데, 이제는 또 미국까지 따라와서 음식재축을 하고 있다고. 음식점에 들어서자마자 음식 재축을 하는 우리의 습관으로는 외국의 접잡은 식당에 들어갔다 자칫하면 망신 당하기 십상일 것이라는 걱정도 된다.

조급한 성격이 불안정 불러

우리처럼 각종의 정책이나 사회제도가 자주 바뀌는 나라도 그리 흔하지는 않을 것이다. 교육제도가 그렇고 농업정책이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 특하면 정책이 바뀌고 제도가 달라진다. 입시제도만 해도 그렇다. 같은 제도가 몇년을 가지 못한다. 새로운 제도가 생기고 몇년쯤 지나 사람들이 그 제도에 적응할 때쯤 되면 또 새로운 입시제도가 나와 바뀌어 버린다. 이런 식으로 계속 되풀이 되다보니 우리는 한가지 제도에 익숙하지 못하고 언제나 생소하며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우리의 조급한 성격은 같은 제도가 오랫동안 계속되도록 놓아두지 않는다. 물론 이유는 있다. 우리나라의 사정으로써 보아서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완벽한

입시제도란 있을 수가 없고, 그 제도의 결함이 발견되면 오래가지 않아 곧 바꾸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것이다. 한 때 장관이 바뀌 때마다 제도가 달라진다는 조소적인 말이 나돌 정도로 우리의 사회적 환경은 자주 바뀌어 왔다. 이 모두가 조급한 우리의 기질 때문이다.

환경이나 주위 여건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면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기 마련이다. 사람은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되면 적응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완전히 적응할 때까지는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우리의 조급한 성질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정책이나 제도가 자주 바뀌게 되고, 이렇게 해서 바뀐 새로운 정책이나 제도에 적응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 동안에 우리는 모두 불안정한 상태로 살아가게 된다.

불안정한 상태에서는 마음이 조급해지고,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또 마음의 불안정을 초래하게 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이다.

조급하게 서두르다 보면 얻는 것이 없는 것은 물론 아니다. 일을 빨리 성사시

의학 에세이



킬 수도 있고, 남들은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시간동안에 큰 일을 해낼 수도 있다. 근래에 우리가 이룩한 경제발전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세계에서 어느 민족이 그 짧은 기간동안에 그토록 엄청난 경제발전을 이룩하였는가. 성급한 기질로 인하여 빠르기로 치면 우리를 당할 민족이 없을 듯하다. 고속도로를 닦아도 남들보다 훨씬 짧은 시간에 해내고, 지하철공사도 그 기간이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았다고 하지 않는가. 그러다보니 여기저기에서 빈틈이 생기고 구멍이 뚫리기는 하지만 어쨌든 빠르기로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한다.

식사하는 것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처럼 먹어치우는 민족이 없다. 이야기하며 즐기며 천천히 식사하는 민족이 많은데 우리는 그게 아니다. 심지어 음식 천천히 먹는 것이 흉이 될 정도이다.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의 빠른 경제성장을 보였을 때 우리는 얼마나 흥분을 하였던가. 세계 곳곳에 대고 사랑을 하고 파시하고 흥청망청 쓰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나라 전체가 뜨거운 열기에 떠 있는 느낌이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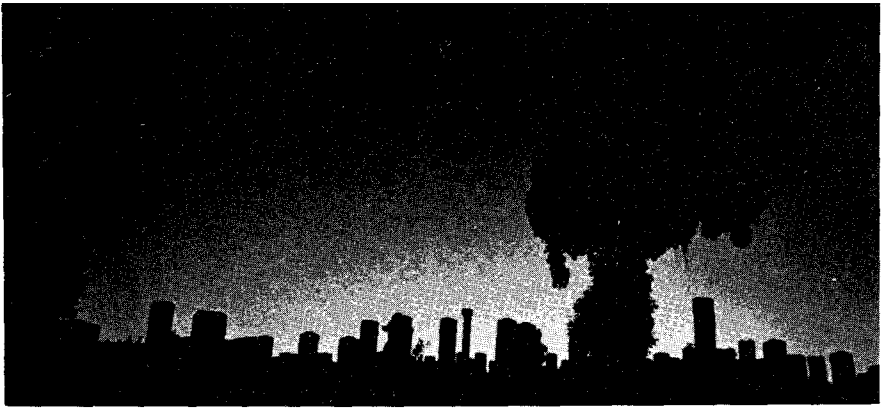
었다. 이제 와서는 다시 경제가 쇠퇴한다고 야단이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한껏 들떠있던 열기는 이제 싸늘하게 식어버렸다.

갑자기 뜨거워졌다가 갑자기 차갑게 식어버리는 우리의 기질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그러한 기질을 빗대어 「양철남비 문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불위에 올려 놓으면 금방 뜨거워졌다가 내려놓으면 금방 식어버리는 양철남비에 우리의 문화를 비유한 것이다.

언제부터, 왜 우리가 이토록 조급한 기질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다.

원래 우리 선조들의 문화가 그랬던 것 같지는 않다. 과거의 우리는 선비정신을

**우리의 그러한 기질을 빗대어
「양철남비 문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불위에
올려 놓으면 금방
뜨거워졌다가 내려놓으면
금방 식어버리는 양철남비에
우리의 문화를 비유한
것이다.**



높게 치고 자연을 사랑하며, 흰옷 입고 팔자걸음 걸으며 유유자적하던 여유있는 일면도 가지고 있었다. 외세의 침략을 자주 받다보니 생활이 안정되지 못하고 살기도 어려워 각박하게 살아가는 중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조급한 기질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던 간에 우리의 조급한 기질은 우리의 정신병리를 만들고 사회전체의 병리를 만드는데 큰 몫을 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에게는 소위 화병(火病)이라는 것이 아주 흔한데, 그 화병이란 따지고 보면 참지 못해서 생기는 병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의 뜻대로 일이 되지 않았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적개심을 풀지 못했을 때, 마음 속에 갈등이 쌓여 그것이 노이로제 증세로 나타나는 것을 화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화병이란 바로 우리의 조급한, 참지 못하는 기질 때문에 생겨나는 병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화병의 화(火) 자체가 급하게 타오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러한 병리현상은 한 개인에게만 생

기는 것이 아니다. 사회전반에도 생겨날 수 있다. 우리의 조급한 기질 때문에 초래되는 우리사회의 병리 중 대표적인 것이 질서의 혼란이라 할 수 있다. 우리에게 참으로 질서의식이 부족하다. 순서가 없고 차례가 없다. 차를 탈 때나, 우체국에 가거나, 관공서에 가거나, 어떠한 경우에도 줄을 서지 않는다. 차례대로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서로 먼저 하겠다고 손을 내밀고 아우성이다. 기껏 줄을 선다고 해도 그 고질적인 새치기 때문에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실력 없는 사람이 실력있는 사람보다 먼저 출세하겠다고 비정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도 질서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조급한 기질 때문이다.

원래 우리의 문화는 양철남비 문화가 아니라 「뚝배기 문화」였다. 서서히 달아 올랐다가 서서히 식어가는 뚝배기와 같은 기질이 우리의 것이었다. 우리가 언제부터 경망스러운 양철남비와 같은 기질을 갖게 되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이제부터라도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참을 줄 알며 기다릴 줄 아는 뚝배기문화로 되돌아갈 수는 없을까. 卍